

광역단체장 “지역 소멸위기 극복, 민생경제 발전” 한목소리

17개 새 지방정부 ‘최우선 과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
경기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등
인천 교통인프라 확충 등 화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한 17개 시·도지사가 이끄는 새로운 지방 정부가 7월 1일 출범한다. 4년 임기로 출범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에게 주어질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으로 꼽힌다. 인구가 늘지 않아 소멸하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에 이른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번호, 통권 3호)’을 보면, 소멸 위험 지역은 제조업이 쇠퇴한 곳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경기 포천·동두천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민선 8기 지방정부를 이끌 17개 광역단체장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고심했다. 동시에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도 제시했다. 민생 경제 회복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먼저 민선 8기를 이끌 서울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제8회 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뉴스1

강원 군사·산림규제 해제 기대
충청권 특화산업 육성·활성 주력
대구·경북 산업단지 첨단화 약속
부·울·경 청년 인구유출문제 해결
호남권 인구 소멸문제 해결 시급
제주 지역기업 육성, 환경보전 화두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화두로 떠오른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이나 공공주택 확대 등 공약도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면서 힘들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도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기에 더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자산 형성 지원, 공공의료·교육 지원 확대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역시 부동산 문제가 화두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중이다. 이

에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하는 게 민선 8기 경기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제 개편도 경기지사가 챙길 과제 가운데 하나다.

경기지사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문제뿐 아니라 경기 지역 내 교통망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지사에게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신설, 도로망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자족도시로의 기능 강화 등이 화두다. 경기뿐 아니라 인천도 서울과 생활권이 붙어있는 만큼, 이동하는 인구는 많은 편이다. 이에 광역 및 도시순환 교통망 활성화 관련 공약을 주요 후보들이 제시했다.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도심 개발과 지역화폐 활성화, 바이오·수소경제·항공정비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도 주요 후보들이 제시했다.

2019·2020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상승률이 90조원대에 머물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인 셈이다.

강원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지방자치 권한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강원 지역 특성상 군사, 산림 관련 규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GTX 노선 연장·연계를 통한 교통망 확충, 신소재·부품·수소 등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 또한 특화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주력할 전망이다. 대전은 산업단지 확충과 기업 유치,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세종도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수도 건설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충남은 혁신도시 완성, 특화 산업 및 관광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으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

로 전망된다. 충북 역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여기에 지역 소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아동양육수당 지급이나 의료비 후불제 등과 같은 복지 제도 확대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도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화두다. 이에 대구 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산업단지 첨단화·재구조화, 중소기업특별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경북도 미래 먹거리인 백신산업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복지 제도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더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화두다. 특히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과 해양·물류 플랫폼 조성 등이 포함된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장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북 새만금 발전, 전남 반도체 및 우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기업 육성과 청년 지원, 환경 보전 문제 등이 화두다. 지역 특성상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곳인 만큼 ‘제2공항 건설’ 문제도 민선 8기 제주지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역 기업 육성 및 특화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발전도 제주지사가 챙겨야 할 과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지방권력도 교체 택했다... 국힘 10곳 민주 4곳 승리, 경합 3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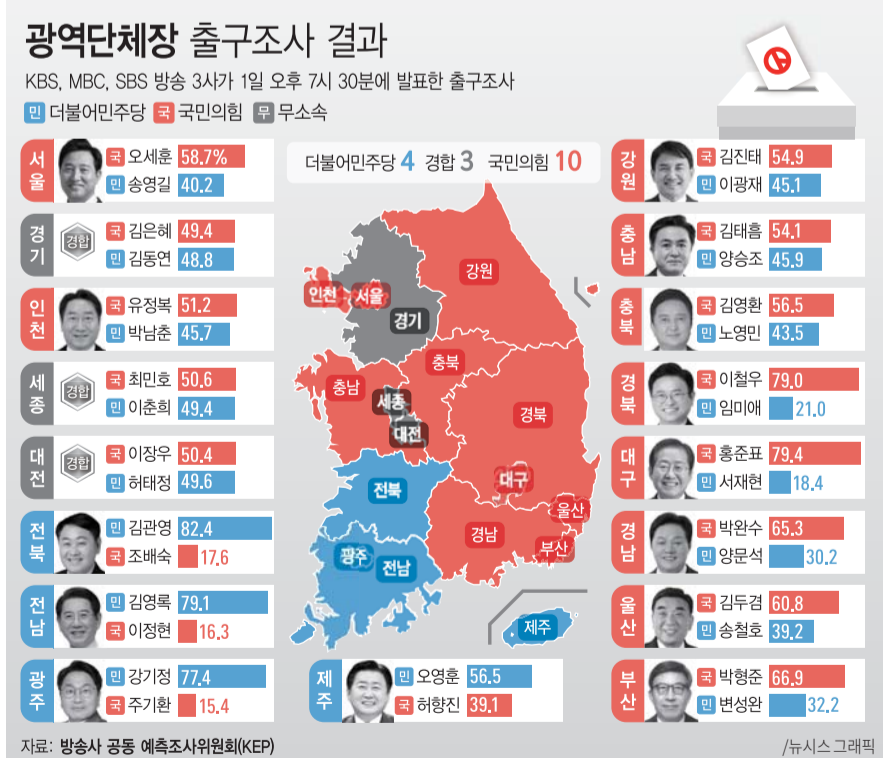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영남·호남 지역, 국민의힘에 쏠려
광주·전남 등 호남, 민주당에 표심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0곳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4곳을 챙길 것으로 예측됐다. 경합 지역은 3곳으로 예측됐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온 투표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예측이다.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9곳+α를 목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6곳이 목표였다. 이번 지방선거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연장전 성격인 만큼,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으로 목표한 것이다.

출구조사 결과 역시 사전투표(5월 27~28일) 기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3개월 만에 치른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17개 시도별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영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호남(광주·전남·전북) 표심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의 경우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예측됐다. 전통적으로 영·호남 지역이 진보, 보수 세력 표심이

강한 곳인 만큼, 이번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송영길 민주당 후보 40.2%,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58.7%) ▲경기(김동연 민주당 후보 48.8%,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49.4%) ▲인천(박남춘 민주당 후보 45.7%,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51.2%) ▲충남(양승조 민주당 후보 45.9%, 김태훈 국민의힘 후보 54.1%) ▲충북(노영민 민주당 후보 43.5%,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56.5%) ▲대전(서재현 민주당 후보 18.4%,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50.4%) ▲세종(최민호 민주당 후보 49.4%, 이준희 국민의힘 후보 50.6%) ▲경북(임미애 민주당 후보 21%,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79%) ▲대구(서재현 민주당 후보 18.4%,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79.4%) ▲경남(양문석 민주당 후보 30.2%,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65.3%) ▲울산(김두겸 민주당 후보 39.2%, 송철호 국민의힘 후보 60.8%) ▲부산(박형준 민주당 후보 32.2%, 변성완 국민의힘 후보 66.9%) ▲제주(오영훈 민주당 후보 39.1%,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56.5%) 등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45.7%,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51.2%) 등으로 예측됐다. 접전 지역인 경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는 0.6%포인트 차에 불과하다.

영남권은 ▲부산(변성완 민주당 후보 32.2%,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66.9%) ▲울산(송철호 민주당 후보 39.2%,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60.8%) ▲경남(양문석 민주당 후보 30.2%,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65.3%) ▲대구(서재현 민주당 후보 18.4%,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79.4%) ▲경북(임미애 민주당 후보 21%,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 79%) 등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호남권은 ▲광주(강기정 민주당 후보 15.4%,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 77.4%) ▲전남(김영록 민주당 후보 79.1%,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 16.3%) ▲전북(김관영 민주당 후보 82.4%,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 17.6%) 등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충청권은 대전·세종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접전인 것으로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대전은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0.8% 포인트 차로 접전이다. 세종

은 이준희 민주당(49.4%)·최민호 국민의힘(50.6%) 후보가 1.2%포인트 차로 접전이다.

충남(양승조 민주당 후보 45.9%, 김태훈 국민의힘 후보 54.1%)과 충북(노영민 민주당 후보 43.5%,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56.5%) 광역단체장 선거는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이광재 민주당 후보 45.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54.9%)도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제주(오영훈 민주당 후보 39.1%,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56.5%)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 의해 이뤄졌다.

조사는 KEP 의뢰를 받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입소스 등 3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원 3162명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631개 투표소(재보선 투표소 20개)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 10만4378명과 만나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3.4%포인트다. /최영훈 기자